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예방

###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의미	목적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li> <li>「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심 발달을 도모함.</li> </ul>

###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규제 대상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평가	재학생	교과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3 선행학습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수업 실시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마련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가 편성해서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li> <li>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li> <li>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 명령하고,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행·재정적 조치</li> </ul>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Q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나요?**

**A**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2년 11월 07일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